

~~CONFIDENTIAL~~

제 2 차 회의록  
국립 중앙도서관

1. 일시: 1965. 4. 21. 14:30 - 15:40
2. 장소: 의무실 233호실
3. 참석자:
 

한규복	-	황 보	박부
		이경호	"
		안석훈	보좌
		김윤택	사무관
임원홍	-	야기	임원부장
		니이야	민사국장
		오도와타	민사국 참사관
		스가노마	임원국 총무과장
		가유미	민사국 제 5과장
		다니구찌	주와과 사무관
		사이키	법규과 사무관
		산부타	부등아과 사무관

4. 회의 내용:

야기: 임원부안은 수를 정할 때에 있어서는 수리가 되지 않은 다음에 제출  
 부탁 한다. 수리는 이미 연립할 때부터 "제수"의 특색의 수의하자.

임원홍: 기쁜 수를 회의에서 이야기 할것은 회의 사항에 의거 임원부안을  
 작성할 때에 있어 임원부안 작성해서 회의 의자본에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수를 정할 때에 임원부의 의사본에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한다.

~~CONFIDENTIAL~~

1597

~~III CONFIDENTIAL III~~

사건으로서만 합의 공동 위원회 같은 것을 검토하여 협정 시행에 있어서  
분적되는 분적을 확실히 나가야 할 것이니 생각함다.

또한 전후 입국자 및 이산 가족의 사회 문제로 어떤 액티브든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니 생각함다. 최우선 대학에는 지금까지 나온 외에 더  
내용을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함다.

야기: 백화 지위중 최우 문제가 제일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방대표: 최우중 교육 문제가 있어서는 현재까지 입학한 내용이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그들의 상급 학교 진학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 부여만을  
확약하고 있는 양반인데, 우리로서는 영주권자가 설립한 학교에 대한  
상급 학교 진학 자격 부여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입학은 이에  
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교육 문제 외에도 사회 보장 제도에  
있어서 그 보장을 확약할 것이 있을런지?

야대표: 솔직히 말해서 사회 보장 제도중 국민 건강 보장은 대다수의 지방에서  
제일 확인이 적용하고 있고, 또 가조 이후 신문에도 보도된 것을 보아도  
입학 여부가 그 적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되니, 국민 건강 보장의  
적용에 대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또한 교육 문제중  
영주권자가 설립한 학교에 대한 진학 자격 부여도 제고해 보기를 바란다.

야기: 영주권자가 설립한 학교에 대한 진학 자격 부여 문제는 드디어 분가는  
한 것이다.

산대표: 자립당 자체 내에서도 상당한 반대가 있다고 한다.

방대표: 가조 이후 신문 보도에 의하면 외부정내에 외국인의 학교 제도 연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보도된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I CONFIDENTIAL I~~

1593

~~비밀~~  
CONFIDENTIAL

신루다: 이따기거나 신문 보도로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며, 설쳐에 이르지  
부하였다.

야기: 입학 문부성 실무자를 본 위원회로 출석시켜드루 하겠다.

야대포: 과거에 문부성 실무자 이야기는 영주권자가 설립한 학교에 진학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일본의 교육 체계를 무관시한다는 주장만으로 입찰하여  
왔었다.

조총련에서 경영하는 학교와 같이, 민족 교육이라 하여 어느 한 개인에 대한  
영웅 숭배 사상이나, 세계적화를 위한 사장 교육이나 하고 있는 학교를  
왜 그냥 두는지? 이해 못 하겠다. 이에 관하여 우리 민간계 학교는 교육  
과정의 일본의 학교와 똑 같으니 모택해를 여지가 있다.

신루다: 조총련계 학교를 단속하는 것은 법률상 곤란한 점이 있다.

야대포: 종전후 조총련이 민간계와 동감제로 분리될 때 한인계 학교가 대개 조총련  
으로 관입이 있었다 한다.

조총련계의 민족 교육 문고에도 일본측서 예산을 뒷받침 해주는지?

야기: 특수한 지역에 조총련계 한인들이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고, 그 지역에 문고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지방 자치 단체의 관할구내이므로 예산의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학여강 문부성 실무자를 출석시켜 확실한 견해를 듣도록 하자.

야대포: 교육 문제로 인하여 우리 대표단의 민간측으로 부터 많은 질문을 당하고  
있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확답을 할수 없으니, 권고문도 출석  
시켜, 민간 입장에서 견해도 듣게 하자.

니이야: 제일 한인이 설립한 학교를 일본의 정식 학교로서 인정해 말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데?

123  
~~비밀~~  
CONFIDENTIAL

1599



이대부: 최우 분장의 기본이 되는 것을 행정 본부의 규정하는 것은 관성이지만,

4. 3월 가조인된 추가된 합의사항 1의 "확대할 노력"을 한다는 것은  
그대로 부분별하는 것이다.

오우와다: 우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확대할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 같은 부분에서 할 것인지? 문답하고, 우리로서는 한국쪽의  
의향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대부: 코우, 자택 보양, 재산 관리를 등의 구체적인 경우가 많으면, 그것의  
전반적인 확대할 노력 보양이 행정 본부의 보양을 보양하면 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나의 생각으로 확대할 노력" 부분은 내용이 없는 부분이다.

야기: 지금 형태로 행정부를 보양하는 것이 가능한가?

오우와다: 보양 계획의 관점으로 보양은 된다.

이대부: 최우의 부의가 얼마나 단 부분으로 보양할 계획인가?

오우와다: 그렇지 않다. 대체적으로 나라 관의된 다음에 하야 행정 본부와  
합의 의사항으로 나누어서 보양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대부: 최우 분장의 부의가 얼마나 것을 기다려서 행정부를 작성한다면  
시일이 걸릴 것인가, 최우 분장의 부의와 행정부의 작성 작업은 영행  
시켜서 진행해야 할 것이고, 단 행정 본부와 합의 의사항은 본부의 하  
부의 확정이 아니고, 동시에 부의해야 할 것이다.

야기: 과연 가조인된 요강안에 의거하여 행정부안을 작성할 것 아닌가?

오우와다: 물론이다. 그러나 행정부안 작성에 앞서 먼저 "확대할 노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쪽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다.

이대부: 우리는 최우에게 있어 생활 보양은 이미 합의 되었으니, ... "등"에  
관하여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이다.



이대표: 삼국 학교 진학 자격이 있어서 외국 학교 졸업자와 평등한 자격을 인정하라는 취지이므로 한국내의 영구 학교 졸업자와 평등한 진학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일본내에 있는 한국계 학교는 일본의 학교로 인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내의 영구 학교 졸업자와 평등한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일본내에 있는 한국계 학교는 일본의 학교로 인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내의 영구 학교 졸업자와 평등한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다음에는 본부성령 이야기를 들은 한편 국민 건강 보험에 대학의 후임성령 이야기도 들으면 어떻겠는가?

오오와다: 그것도 좋다. 한국측 소망의 어떤 것이지? 먼저 물어야 하겠다.

이대표: 우선 국민 건강 보험에 대학의 상환 논의 학자는 것이다.

산루다: 후임성령은 한국측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조정되어야 이에 따라 논의 하겠다는 것이다.

이대표: 당초 우리는 사회 보장 전부를 적용토록 해달랐던 것이다, 어느 정도 좁혔고, 미국 국민 건강 보험 하나라도 그 적용을 보장 받는다면 단건에 대해서는 이해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야기: 그러나 본부성과 후임성령 실무자가 다 함께 들으시는 어렵다.

오오와다: 본부성령에서는 어느 정도 넓은이 나온 모양이니 본부성령 이야기를 먼저 들도록 하자.

사이끼: 한국측이 최우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지?

이대표: 국방 외상 회담 기관중 겸대사 우선과 신의관 회담에서 아츨이 열거해서 내놓은 안이 그것이다. 당시 "야나가야" 사무관과 동안이 최종적이냐? 문기에 그것만 적용된다면 단건은 철회한다고 가지 이야기 한바 있다. 최우에 임률이 포덕해 주려면 가능한것으로서 우리가 무척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CONFIDENTIAL~~

사이끼: 상포 마찬 가지다.

오오와다: 재산 반환 및 송금의 대학원은 대장실과 나중 에 논의하도록 하자.

이대표: 우선 문부청과 부실청과 이야기 한후 대장실과 논의하도록 하자.

오오와다: 회의의 추진을 위하여 부부작성 작업을 어떻게 할것인지? 구체적  
으로 방안을 생각하자.

이대표: 채우를 직접적으로 김관장부 부부화 작업을 하는 것은 늦어지니  
일부의 안을 사트 내거나, 일부의 안을 내면 이에 기초하여 남의 수정  
해도 될것이다.

야기: 남주에 편집 방안이 준비 되었는가? 안되면 남주에 1회 가량 채우에 대하여  
의 논의하자.

이대표: 다음 회의를 보약 23일 잡 하자.

야기: 4. 23. (금) 14:30에 하자.

산루다: 이승 회관 일자를 정하고 문부청과 타협하여 연락하겠다.

산루다: 신문 발표문?

이대표: 채우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하자.

야기: 좋다.

1236

~~CONFIDENTIAL~~

1604